

롯데 밀고 키움 잡고... 상위권 도약 기회의 1주일

T 타이거즈 전망대

오늘부터 롯데·키움과 원정 6연전
키움 1.5경기 열세·롯데 3경기 우위
이번주 성적이 상위권 도약 가능성

박준표·전상현·문경찬 뒷문 든든
터커·유민상·최형우 화력 폭발
불펜 과부하 따른 선발진 긴 이닝
정교한 내야 수비 승패 관건

■ KBO 중간순위 (22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40	28	0	12	0
2	두산	41	25	0	16	3.5
2	LG	41	25	0	16	3.5
4	키움	42	25	0	17	4
5	KIA	41	23	0	18	5.5
6	롯데	41	20	0	21	8.5
7	삼성	42	20	0	22	9
8	KT	41	18	0	23	10.5
9	SK	41	12	0	29	16.5
10	한화	42	10	0	32	19

쫓고 쫓기는 자들의 승부가 펼쳐진다.

5위 KIA 타이거즈가 23일부터 원정 6연전길을 떠난다. 상대는 6위 롯데 자이언츠와 4위 키움 히어로즈다.

롯데는 3경기 차에서 KIA를 쫓고 있고, 반대로 KIA는 1.5경기 차 밖에서 키움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앞선 대결에서는 KIA가 웃고 올었다.

KIA는 롯데와 올 시즌 6번 만나 모두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지난 시즌까지 더하면 롯데전 9연승이다.

키움에는 열세 만화에 실패했다. 지난 시즌 키움에 5승 1무 10패로 열세를 기록한 KIA는 시즌 첫 대결에서도 루징 시리즈를 남겼다.

시즌 초반부터 극과 극의 5강 구도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9위 SK와이번스, 10위 한화 이글스의 극심한 부진이 순위 싸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KIA는 지난주 선두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유일한 상위권(2승·1우천 취소)을 점쳤고,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4연속 위닝시리즈에 성공했다. 4승 1패를 수확하면서 승률도 0.561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5위다.

SK와 한화가 올 시즌 합작한 승리가 22승에 그치면서 상위권 팀들의 독식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KIA에게는 위를 봐야 하는 한 주.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는 '4위 도전'을 위한 한 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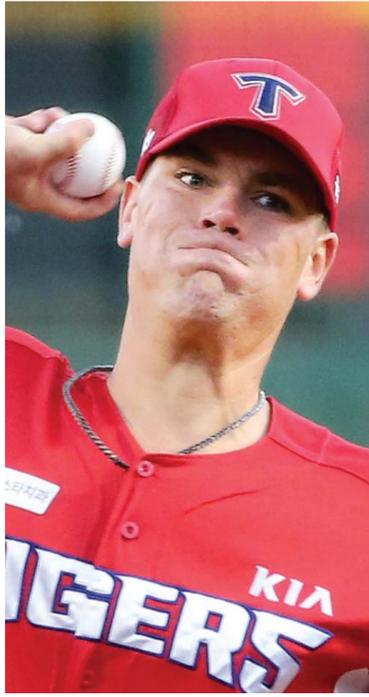
고민이었던 화력 집중력은 한시름 덜었다.

KIA는 지난주 연달아 역전극을 연출하며 4승을 수확했다. 최형우가 3경기 결승타를 책임지면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고, 결정적인 순간 흐름을 기울이는 한 방들이 터졌다.

터커의 동점 스리런, 유민상의 역전 만루포 등 영양가 만점 홈런이 연달아 기록됐다. 또 김호령의 올 시즌 3번째 1회말 선두타자 홈런, 프로 6년 차 최정용의 프로데뷔 홈런, 나주환의 깜짝포 등 '한방'의 힘이 더해지면서 KIA의 화력에 불이 붙었다.

뒷문의 힘도 여전하다. 박준표-전상현-문경찬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지난주에도 KIA의 승리를 책임졌다.

마무리 문경찬은 지난 한 주 4승을 모두 책임지면서 NC 원종현과 나란히 10 세이브로 공동 1위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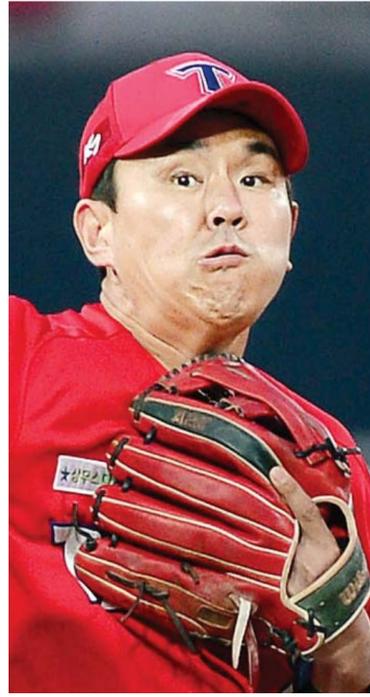


브룩스

름을 올리고 있다. 전상현도 3개의 홈드를 더하면서 삼성 최지광, KT 주권과 홈드 공동 1위다.

선발의 '이닝'과 내야진의 '수비'가 4위 도약을 위한 비법이 될 전망이다.

21일 양현종이 4이닝 8실점으로 패전투수는 됐지만 브룩스-이민우-기봉-임기영으로 이어지는 선발진이 안정감을 보이면서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나주환

연패 없이 착실하게 승리를 쌓아오고 있다.

하지만 선발진의 이닝은 아쉬움이다. 비로 한 경기를 쉬었던 지난주 선발 5명이 5경기에서 채운 이닝은 25이닝에 그쳤다. 브룩스가 가장 많은 5.2이닝, 양현종이 4이닝에서 등판이 멈췄다.

여기에 지난주 세 경기가 1점 차 승부로 끝난 만큼 필승조의 부담이 많았다. 선발진이 더 많은 이닝



이민우

을 책임지면서 마운드 운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수비도 중요하다. 이번 원정을 통해 KIA는 사직과 고척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오랜만에 찾는 두 경기장 모두 내야의 타구 속도가 빠르, 수비가 까다로운 구장이다. 첫 경기 기선 제압을 위해서는 내야의 차분한 수비가 필요하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백승호 '오늘만 같아라'

獨 2부리그 비스바덴전 1골1도움



독일 프로축구 2부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의 미드필더 백승호가 1골 1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역전승을 이끌었다.

백승호는 21일(현지시간) 열린 비스바덴과의 2019-2020 2부 분데스리가 33라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밀리던 후반 18분 크로스로 제르다르 두르손의 동점 골을 어시스트하고, 후반 32분에는 역전 결승 골을 터뜨렸다.

백승호의 특점은 2월 7일 튀니아 드레스덴과의 21라운드에서 터뜨린 독일 무대 데뷔골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도움은 이달 14일 하노버와의 31라운드 이후 2경기 만에 기록됐고, 시즌 공격 포인트는 2골 3도움으로 늘었다.

백승호의 활약에 힘입어 다름슈타트는 3-1로 역전승, 5위(승점 49)를 지켰다.

다름슈타트는 경기 시작 5분 만에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전반 26분에는 페널티킥 상황에서 나온 캠페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 하인츠 린트너의 선방에 막혔다.

강등권 팀에 끌려다니던 팀을 깨운 건 백승호였다. 후반 18분 동점골 도움이 시작이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백승호가 올린 '택배 크로스'를 두르손이 머리로 받아 넣어 다름슈타트는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다.

백승호는 후반 32분에는 직접 골문을 열었다. 코너킥에 이은 혼전 상황에서 공이 뒤로 흘렀고, 백승호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강슛으로 마무리했다.

이 골 직후 백승호는 마르셀 헬러와 교체됐고, 헬러가 후반 41분 왜기골을 터트리며 역전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막판 5분 못버티고... 기세 꺾인 광주

K리그1 8라운드 전북 원정 0-1

무패 4경기서 마감...7위 유지

광주FC의 기세가 '전주성'은 넘지 못했다. 광주가 지난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0 K리그1 8라운드 전북현대와 원정경기에서 0-1로 패했다.

'4연승'을 놓고 맞붙었던 두 팀은 후반 40분 터진 한교원의 골에 표정이 엇갈렸다. 수원삼성을 시작으로 부산아이파크, 울산현대를 상대로 3연승을 달렸던 광주는 마지막 5분을 지키지 못하면서 무패 행진을 4경기(3승 1무)에서 마감했다.

전북은 진담 승부 끝에 4연승에 성공(7승1패·승점 21). 울산현대(6승2무·승점 20)를 따돌리고 선두 자리를 지켰다.

광주는 지난 시즌 K리그2 우승을 이끈 총출동 수비로 '난적' 전북을 무었다. '선수비 후역습' 전략으로 나서면서 마음 급한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승부를 펼쳤다.

최근 광주의 상승세의 주역인 윌리안과 펠리페도 전북 간담을 서늘게 하는 장면도 연출했다.

전반 34분 역습 상황에서 윌리안의 오른발 슈팅이 아쉽게 골대를 비껴가면서 땅을 쳤다. 후반 6분에는 윌리안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가 골키퍼를 따돌리고 슈팅전까지 맞췄다. 하지만 펠리페의 왼발을 떠난 공이 골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다시 한번 광주에는 아쉬운 장면이 만들어졌다.

'스타 군단' 전북의 발을 묶으며 평평한 승부가 전개됐지만 승점까지는 5분이 부족했다.



광주FC의 엄원상(사진 왼쪽)이 2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의 K리그1 8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후반 40분 전북 이주영의 왼발 시저스킥이 수비수 맞고 골 지역 왼쪽에 있던 한교원 앞에 떨어졌다. 한교원이 오른발로 가볍게 공을 터치하면서 이내 광주 골망이 출렁거렸다. 막판 공세를 벌인 광주

가 끝내 전북 골대를 뚫지 못하면서 경기는 0-1 패배로 끝났다. 광주는 승점을 더하지는 못했지만 그대로 7위 자리(3승 1무 4패·승점 10)를 유지했다.

한편 부산아이파크와 인천유나이티드의 '벼랑 끝' 승부에서는 부산이 승자가 됐다. 부산은 후반 32분 터진 김문환의 골을 지키면서 개막 후 8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인천은 승 없이 2무 6패로 최악의 부진에 빠졌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 FC 10주년 유니폼 팬이 결정

구단 공식 홈페이지 29일 낮 12시까지 3개 디자인 중 택 1

광주FC가 창단 10주년 기념 유니폼 선정 팬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팬투표는 10주년 기념 유니폼 제작에 앞서 최종 3개의 디자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디자인 주제는 'READY & START'다.

이 유니폼은 2011년 창단 첫해 유니폼 상징이었던 V패턴과 숫자 10을 형상화했다. 왼팔에는 지난 10년을 함께한 광주월드컵경기장을, 오른팔에는 재도약의 상징인 축구전용경기장을 이미지로 표현했다.

두 번째 유니폼은 '금의환향' (錦衣還鄕)을 주제로 디자인됐다.

광주의 상징인 주작(봉황)의 날개와 깃털을 형상화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세련미를 살리기 위해 절제된 패턴과 통일된 색상을 사용하는 등 창단 10주년을 맞아 더욱 견고하고 강해진 광주를 담아냈다.

세 번째 유니폼은 지난 3월 진행된 10주년 유니폼 공모전 당선작이다.

패턴에 축구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모습을 표현했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와 비상의 빛을 대가



선 줄로 표현해 멋을 더했다. 또 양팔 소매에 10주년 슬로건을 넣어 의미를 강조했다.

22일 시작된 투표는 오는 29일 오후 12시까지 광주 구단 공식 홈페이지(gwangjufc.com)를 통해

계속된다.

광주를 사랑하는 팬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일 1회에 한해 중복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